

스님이 그곳으로 가시어 선법을 크게 일으켜 주시오

진여사

마조 대사의 원적도량인 보봉사를 떠나 1시간 반 만에 목조선 도량이었던 진여선사(眞如禪寺)에 다다른다. 먼 거리는 아니지만 구불구불한 산길을 버스가 느끼게 서행을 한 탓이다. 산마루에 오르니 구름이 한 자락 하늘에 걸려 있다. 그래서 진여사의 첫 이름이 운거사(雲居寺)였던 것 같다. <운거사개산연기문>에 따르면 도용(道容) 선사가 당 헌종 원하 3년(808)에 운거사를 창건한 것으로 돼 있다.

운거사는 다시 북송 때 진여선원으로 불리다가 문혁 이후 진여선사로 개명됐다고 한다. 현재는 진여사 혹은 운거사로 불리는데, 진여사도 선과 풍수가 결합된 사찰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풍수란 잘 알다시피 부처님 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풍수지리가 유행하던 당시에는 절터를 정하는데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 같다. 사마두타는 선어록에 풍수의 달인으로 등장하는바 보봉사와 백장사, 밀인사 등의 절터도 그가 점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마두타는 도용 선사에게도 운거사 절터를 잡아주었다고 전해진다.

도용은 한때 운거산 남쪽 산록의 요전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마두타가 찾아와 도용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전세에 풍수지리를 배웠던바 스님을 위해 좋은 터를 잡아드리겠소. 여기서 십오 리를 더 들어가면 승지(勝地)가 될 만한 곳이 있소. 그곳은 예부터 다섯 신인(神人)이 상주했던 곳으로 대찰이 들어설 길지(吉地)지요. 스님이 그곳으로 가시어 선법을 크게 일으켜 주지 않겠소.”

“그토록 찬탄하는 터이니 한번 가서 보겠소.” 도용은 사마두타가 점지한 땅을 답사한 뒤 당 헌종 원하 3년에 운거사를 창건했고, 이후 동산 양계 선사의 제자 운거 도용이 운거사를 찾아와 902년에 입적할 때까지 30년간 주지를 살면서 제2개산조가 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에서 발원한 조동종의 정맥도 조산 본적과 운거 도용에 의해 천하에 퍼지게 된다. 특히 운거 선사 문하에서 6년 동안 목조선을 익힌 신라승 이엄은 고려 초에 귀국한 뒤 왕건의 스승이 되어 황해도 해주 수미산 광조사에 구산선문 중에 마지막으로 수미산문을 개창하는바 운거사는 우리나라와도 적지 않은 인연이 있다.

“스님의 높으신 뜻이?...”
“구구는 팔십일이다.”

조주관(趙州關) 앞에서 하차한 순례 일행은 잠시 경건하게 옷깃을 가다듬고 나서 함장한다. 조주관은 진여사의 산문인 셈이다. 눈발 가운데 생긴 호수 너머로 멀리 진여사가 보인다. 운거 도용 선사가 조주 선사를 여기까지 배움을 나왔다고 해서 조주관이라는 이름이 유래한 모양이다. 운거 선사의 나이를 감안하면 먼 거리의 배움이다. 그만큼 운거 선사와 조주 선사가 의기투합한 바가 있었던 것 같다. 두 선사의 첫 만남이 <조주록>에 보인다.

조주가 운거산에 이르렀을 때 운거에게 말했다. “연만하신 분이 어찌 머물 곳도 못 찾으십니까.” 조주가 남전사를 60세에 떠나 20년 동안 천하를 만행하였으니 이때 나이는 분명 60세가 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연만하신 분’이라고 했을 것이다. “어느 곳에 머물면 되겠소.” “앞 쪽에 옛 절터가 있소.” “그럼 스님이나 머물도록 하시오.” 운거 선사가 예전에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가리



백장 선사의 농선병행의 가풍을 실천하고 있는 진여사 대종 스님들.

이 내주려 하지만 조주 선사는 무슨 뜻에선지 거절하고 있다. 운거 선사가 조주 선사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던 것일까. 조주가 운거를 사형으로 부르는 대목도 있다.

조주가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운거산에서 왔습니다.” 조주 선사와 운거 선사의 스님들 간에 왕래가 있었던 것 같다. 강서성 운거산에서 하복성 석가장까지 걸어가려면 몇 개의 성을 거치는 몇 천리의 거리이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도 왕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조주 선사와 운거 선사가 서로의 내밀한 경지를 인정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운거 스님은 무슨 말씀으로 가르치더냐.” “어떤 스님이 문기를 ‘영양이 뽕을 나무에 걸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자 운거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육육은 삼심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운거 사형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이번에는 그 스님이 물었다. “스님의 높으신 뜻은 어떻게 됩니까.” “구구는 팔십일이다.”

이번에는 조주 선사가 운거 선사에게 한 스님을 보낸 선화다. 이 선화에 나오는 ‘마당을 쓴다’는 행

위는 마음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태도가 아니었을까. 본래마음이란 쓸고 말고 할 것이 없는데 말이다.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마음을 쓴다’는 것은 마음을 더럽힌다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조주가 한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그렇게 쓸어낸다고 깨끗해지겠느냐.” “먼지(번뇌망상)를 쓸면 쓸수록 많아집니다.” “어찌 먼지를 털어버린 이가 없겠느냐.” “먼지를 털어버린 이 누구입니까.”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운거 스님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 스님이 관음원을 떠나 운거산에 머물고 있는 운거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누가 먼지를 털어버린 사람입니까.” 이에 운거 스님이 날벼락을 내렸다. “이 눈먼 놈아!”

산문 격인 조주관을 지나자 바로 호수가 하나 나타난다. 명월호(明月湖) 혹은 방생호(放生湖)라고도 부른다. 호수 둘레의 논밭에서는 소들이 풀을 뜯고 있다. 아직 씨를 뿌리기 전의 한가한 전원풍경이다. 왼편 계곡으로 보이는 널따란 차밭만 푸르다. 그러나 풍광을 감상할 만큼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다.

“운거산의 가풍은?...”
“조주의 차맛이나라.”

순례 일행은 11시 30분에 시작하는 점심공양 시간 약속을 넘겼으므로 걸음을 빨리해 대웅보전으로 수불 스님을 뒤따라간다. 아무리 바빠도 부처님께 참배를 먼저 하는 것이 불제자의 도리다.

“아마도 이 절에 처음 온 것이 89년일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크지 않고 스님들이 똥지게 지고 발일하고 있었습니. 고즈넉한 경내에 우리 일행만 왔다 갔다 했지요. 신도회장이 같이 오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곳 스님들이 선철(禪七) 정진한다며 그런 수행에 자부심 같은 것을 갖고 있었던 거 같았습니다.”

대웅보전에 들어가 참배를 하고 나니 12시다. 그런데도 공양간에서는 우리 일행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주지 스님과 지객 스님이 공양을 준비하는 사미승과 행자들에게 이런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양간 기둥에도 염불시수(念佛是壽)라는 화두가 붙어 있다. ‘염불하는 이 누구인가’ 인지, 아

니면 ‘부처를 생각하는 이 누구인가’로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절에서 느끼지 못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공양을 일사불란하게 마치고 순례 일행은 백과수(白果樹) 그늘에 모인다. 백과수란 운거 도용 선사가 심었다는 은행나무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려 있고, 멍석에는 진여사 스님들이 직접 기르고 수확한 곡식의 낱알들이 널려 있다. 콩, 팥, 보리, 팥, 호두 알, 홍미(빨간 쌀), 심지어 연꽃 씨까지 수확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곡식들도 이곳 스님들이 농선병행한다는 증거다. 백장의 가풍을 이곳에서 또 보는 셈이다. 그리고 보니 조당에서 운거 선사와 달마 대사 사이에 있는 백장 선사의 소상을 보았던 것도 같다.

“오래 된 고목이 이렇게 절 한쪽에서 버티고 있으니 고찰이라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오 극근 스님이 이곳에서 주석했어. 역대 큰 스님들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이 진여사를 대부분 거쳐 갔지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양자강이 있으니까 배에서 내려 먼 데가 아닌 이곳을 찾아왔던 거지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백과수를 좋은 벗삼아 역대 큰 스님들도 대나무 의자에 딱 앉아 가지고 깜박 졸기도 하고 정진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불 스님은 겨울철에 49일 동안 일주일 단위로 반복해서 참선 정진하는 진여사만의 용맹정진 선철(禪七)에 대해서 방문을 하신다.

“일주일마다 같은 화두를 들든 다른 화두를 들든 화두를 타파 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재도가 선철 정진입니다. 일주일 동안 화두 타파를 목적으로 용맹정진하는데, 그것을 일곱 번 거꾸 돌아가는 것이지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처럼 떨어지면 다시 모진 매질을 해서 올라가게끔 밀어붙이는 건데 일 년에 한두 차례 갖는 것 같아요. 수시로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선 지식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 변화가 있겠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서퍽어치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하고 엄청난 것은 사실이지요. 월암 스님도 한 번 들어와 선철 정진을 했다 하고 외국인들도 간혹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허운화상 기념관을 가려면 백과수 왼쪽으로 난 문을 나가야 한다. 기념관으로 가는 도중에 선철 선방의 후문과 몇 천 평 넘게 조성된 차밭도 보인다. 진여사의 선다정신(禪茶精神)은 운거 선사 입적 후에 주지로 살았던, 소동파와 많은 일화를 남긴 불인 요원(佛印了元; 1032-1098) 선사 때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된다. 불인 선사가 조주의 차맛(趙州茶味)을 운거산의 가풍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불인 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운거산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조주의 차맛(趙州茶味)이나라.” “조주의 차맛은 무엇입니까.” “차나 한 잔 들고 가게나.”

허운화상이 원적한 곳은 운문사인데, 진여사에 기념관을 건립한 까닭은 화상이 진여사에 주석하면서 선종오가의 만행 격인 위양종을 복원시켰기 때문인 것 같다. 호남성 상양 출신의 허운화상이 17세에 출가하여 120세에 원적에 들기 전까지 화상이 세운 업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미 소멸한 운문종과 위양종을 복원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선종오가 중에 아직 복원되지 않은 종파는 법안종 뿐인 것 같다. 기념관을 나서는데 사진 한 장이 눈앞을 아른거리다. 90세의 허운 화상이 팬이를 들고 발을 가는 흑백사진이다. 문득 백장 선사의 후신이 있다면 허운 화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동상 선사의 제자인 운거 선사가 주석했고, 근현대 중국 선불교를 중흥시킨 허운 화상의 행화도량이었다던 진여사.

법정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스님의 수행처 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 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흠구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

법정스님의 배배옹 의사 ‘네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 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신간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정찬주의 마음기행